

신간도서 침체 속에 중판발행은 늘어

출판협회 집계 '90상반기 출판통계'

올 상반기(90.1.1~6.30) 동안 발행된 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총 발행종수는 6.1%가 증가한 22,400종으로 집계되었다. 또, 총 발행부수는 18%가 증가한 1억 3,344만 6,344부로 나타나 발행종수보다는 발행부수의 증가가 더욱 높았고 초판보다는 중판 이상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말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가 집계, 발표한 '90 상반기 출판통계'에 따르면 발행종수의 경우에는 초판은 오히려 3.9%(전년동기대비)가 감소하였고 중판이 17.9% 증가하여 실질적인 신간도서의 발행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나타내 주었다. 발행부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초판의 증가는 2.7%의 미미한 증가에 멈춘 반면, 중판의 증가는 47.5%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독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좋은 책의 경우 상당한 부수의 재판을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의 급증이 상대적으로 경쟁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고 필자와 원고의 극심한 부족, 출판사의 창의적인 기획출판의 노력의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간도서의 출판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판 이상의 책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기획력이 좋아져 한중당 평균 발행부수가 늘어나 독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끄는 스테디셀러나 롱셀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출판도 형식적인 종수의 범람에서 벗어나 차차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추세로 볼 수도 있었다.

책값은 높아졌지만 면수는 줄어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증가한 분야로는(신간도서의 경우) 철학이 59.1%가 늘어나 가장 활발한 출판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순수과학 분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학습참고서는 15.8%, 문학도서는 7.5% 씩 각각 증가하였다. 반면, 총류, 종교, 사회과학, 기술과학, 예술 등의 분야는 감소하였다.

도서의 평균 발행부수도 전년동기(5,345부)에 비해 11.4%가 늘어났으나, 역시 초판의 경우에는 7.0%의 소폭 증가에 머문 반면, 중판이 평균 5,052부로 25%의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책의 평균 가격은 5,736원으로 전년 같은

△ 감소

출판통계표

기간 : 90.1.1~6.30

구분 분야	발행종수(종)				발행부수(부)				평균 발행부수 (부)	평균 정가 (원)	평균 면수 (면)
	초판	중판	계	전년비 성장율(%)	초판	중판	계	전년비 성장율(%)			
총류	80	147	227	△55.4	199,220	690,050	889,270	△50.6	3,917	10,528	374
철학	347	271	618	22.6	2,073,520	422,750	2,496,270	222.1	4,039	4,398	294
종교	756	1,022	1,778	3.0	1,903,546	4,365,577	6,269,123	△22.9	3,525	3,766	307
사회과학	1,675	844	2,519	△0.5	2,743,500	1,404,600	4,148,100	△29.0	1,646	7,967	400
순수과학	178	187	365	7.0	230,200	384,550	614,750	23.6	1,684	7,298	340
기술과학	936	841	1,777	△14.6	977,615	1,084,550	2,062,165	△10.6	1,160	8,348	375
예술	489	826	1,315	19.2	1,604,400	2,322,150	3,926,550	43.6	2,985	8,910	187
어학	463	650	1,113	△1.0	1,894,300	2,486,820	4,381,120	16.4	3,936	7,413	373
문학	1,719	2,201	3,920	22.8	3,262,170	6,441,624	9,703,794	55.3	2,475	3,790	312
역사	380	238	618	△6.0	640,647	496,962	1,137,609	4.2	1,840	6,798	306
학습참고서	2,841	688	3,529	28.8	57,186,843	13,536,550	70,723,393	21.9	20,040	5,597	164
아동	1,085	3,536	4,621	0.5	2,988,400	24,105,800	27,094,200	27.6	5,863	4,399	109
계	10,949	11,451	22,400	6.1	75,704,361	57,741,983	133,446,344	18	5,957	5,736	257

(주) 1. 문화부 남분에 의한 대한출판문화협회 집계임 2. 만화·전기간행물 등은 제외됨.

기간의 5,091원보다 12.6%가 증가하였고 책의 면수는 오히려 2.2%가 줄어든 평균 257면으로 집계되었다.

가장 비싼 분야의 책으로는 백과사전류의 원색화보를 많이 사용하는 총류분야의 도서로 평균 10,528원꼴로 나타났고 예술분야의 도서가 평균 8,910원꼴로 기타 다른 분야의 도서보다 다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분야는 평균 3,970원으로 평균가격보다 다소 싼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종교도서가 3,766원으로 가장 저렴한 도서로 나타났다. 책의 면수가 가장 두꺼운 분야는 사회과학으로 400면, 가장 얇은 도서로는 아동책으로 109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의 출판사 수는 90년 5월말 현재 5,384개사로 지난해 5월의 4,726사보다는 13.9%가 늘어났고, 87년 출판활성화 조치 이전(2,594개사)보다는 2배가 넘는 107.5%의 엄청난 증가를 보였다.

서울편중현상 여전히 극심

5,384개의 전국출판사 중에서 서울에만 78%에 해당하는 4,201개사가 몰려있고 1,183개사만이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도서발행량을 보면 발행종수의 경우 서울과 지방의 비율이 97:3, 발행부수의 경우에는 99:1꼴로 나타나 극심한 서울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 출판물 중에 눈에 띄는 특색으로는 청소년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교양도서의 활발한 출판경향을 들 수 있다. 프랑스 고교생들이 대학입학자격시험 준비용으로 이용하는 책을 번역, 간행한 도서출판 예하의 '인간과 철학' 총서를 비롯하여, 철학서적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서광사의 '철학이 깃든 동화' 시리즈와 도서출판 한겨레의 '꿈이 있는 삶' 시리즈 등 김영사에서는 '과학에의 초대' 시리즈물을 발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용 도서의 활발한 출판이 이루어졌다. 이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상업성만을 중시하던 하이틴 또는 통속교양물의 차원을 벗어나 우리의 청소년물도 이제 고급화, 전문화돼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출판사 수의 급격한 증가는 출판사 간의 경쟁을 더욱 부채질하여 시장확보와 독자개발, 도서의 상품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데 출판사들이 주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야기시켰다. 하루 평균 60~70여권 꼴로 발행되고 있는 신간도서들 중에서 自社의 책이 독자들의 눈에 더욱 잘 띄게 하기 위한 차별화의 길은 관심은 복디자인의 다양한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는 표지 디자인 정도에 머물던 복디자인에 대한 폭이 넓어져 표지는 물론이려니와 책의 제목, 속표지, 목차, 본문 및 삽화, 심지어 판권의 표시에 까지 미적인 감각을 표현하려는 도서의 토털디

자인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사회가 산업화, 현대화, 핵가족화되면서 가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자녀들과의 대화단절, 아버지의 권위실종 등 부정적인 측면에 맞서 부모의 사랑과 정성,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끊임없는 그리움을 통해 가족공동체적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려는 책들이 활발하게 발행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된 계기의 책으로는 율유문화사가 지난해 2월에 펴낸 「내 아들이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는 책이 상당한 판매량을 기록하며 비소설 부문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자 이와 유사한 책의 발행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룬 책으로는 교육문제, 청소년 심리학의 권위자인 니키 마론이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 쓴 인생의 지침서 「우리딸의 "최고의 인생"을 위해」,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이며 어떤 사람이 무자극 부모인가,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 상처를 입히며 이 상처를 극복해 정상적인 삶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을 심리치료적인 관점에서 쓰고 있는 「이런 사람이 무자극 부모다」(수잔 포워드, 삼신각)를 비롯, 「아빠의 육아일기」(맹명관, 해냄출판사), 「대학에 들어간 아들에게」(이광규, 집현전) 등을 들 수 있다.